

# ‘신뢰·존경받는 종단’ 급선무

법장스님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추락한 종단 이미지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는 법장스님이 누차 강조했듯이 사회적 신뢰를 얻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승가다운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법장스님은 선거로 양분된 중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시급히 매달려야 한다. 이는 오랫동안 숙원과제로 여겨져 온 ‘종단화합’ 과도 맞물려 있다.

## 법장 총무원장의 과제

법장스님이 선거과정에서부터 ‘원용살림’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중도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다.

법장스님 측은 이번 선거의 승리가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문중간의 갈등을 허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문중 중심 구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중간의 ‘세력다툼’이 약해지면 종단화합은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고, 따라서 인사평형이나 지방 교구의 권한 확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 법장스님의 기본 인식이다.

다음은 사면문제다. 연초 종정 법장스님이 사면 교시를 내린데 이어, 지난달 27일 원로회의가 종정스님의 교시를 받드는 ‘사면 유시’를 내림으로써 법장스님은 큰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사면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 고려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승가노후복지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임기 내에 토대를

나뉘며기식의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방식 등도 하루속히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법은 선거인단 수 조정이나 추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승가에 적합한 선출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장스님이 개정의지와는 별개로 중앙종회나 문중, 각 교구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설 행사교육원 건립 및 종단 기본교육기관 체계 정비도 시급하다. 승가교육의 첫 단계인 행사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동

국대, 중앙승가대, 강원, 기초선원 등이 일률적으로 기본교육기관으로 묶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공약으로 제시됐고, 또 교육원에서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법장스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종단 행정 참여 요구, 수행환경 및 사찰 환경 침해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 노무현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 이행 등도 임기 내에 풀어야 할 과제들로 꼽힌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 98·99년 종단사태 징계자 사면 숙제 승가노후복지 임기내 토대 마련해야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각종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승가전체가 바라는 숙원과제다. 더욱이 교구별 노후시설 건립 및 승가노후연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장스님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이를 실현시켜야 할 입장이다. 각 교구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의 선거법 개정도 숙제다.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미비하고 불합리한 총무원장 선거법은 물론, 계파간

## 불교계 대표적 사회활동가

### 법장스님은 누구인가

출가한 사촌형의 ‘제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는 법장스님.

스님은 정혜사 능인선원과 통도사 극락선원 등에서 다섯 안거를 하며 경봉스님으로부터 ‘중도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수행정진의 지표가 됐다.

법장스님은 불교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나눔실천회, 생명나눔실천회는 신장 이식 등 장기기증 결연활동을 벌이는 불교계의 유일한 장기기증기관으로, 이 단체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장본인이 바로 법장스님이다.

### 교계 고른 지지·기관장들 폭넓은 유대 다정다감하고 자상·일 아무지게 처리

법장스님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쌓아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선원이나 강원 등 수행과 교육분야는 물론, 포교나 행정 분야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과도 폭넓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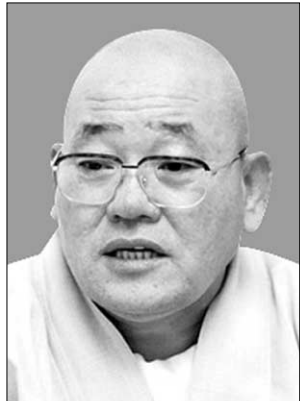
다정다감하고 자상하며, 친근감을 주는 스타일로, 매사에 꼼꼼해 일처리가 아무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어린 스님을 잘 모시기로 평명이 나 있기도 하다.

행정에는 밝지만 중앙정치체력이 약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법장스님은 ‘이것이 오히려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원용한 종단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장스님은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0년부터 중앙종회의원을 네 차례 지내고,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종단 정치와 총무원정에 대한 식견을 쌓았다. 한명우 기자

## 화합·변화 바탕 종단위상 제고

### 인터뷰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법장스님은 2월 24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결과를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불교의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사부대중의 뜻”이라며 “한국 불교의 전통가치를 보존하고 원용살림을 통해 화합하고 발전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소감은? —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중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까지 모범을 보이신 종하스님께도 아울러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 화합과 개혁, 안정과 변화를 기조로 종단발전과 불교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북한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 어려운 문제는 협의해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일 방식이다. ▲ 종단 개혁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 선거기간에 제시했던 정책은 평소의 생각 그대로다. 모든 분야에서 종단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다. 합리적인 종단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 인사평형책을 공약했는데...

— 누차 강조했던 원용살림은 곧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약속했던 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 앞으로 사회활동 계획은?

— 불교의 근본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모든 것을 적극 수용하고 참여할 생각이다

▲ 다른 종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은 원용

이다.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 사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 바로 답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종회에 법개정을 요청해서 해야 할 것이다. 사면할 부분이 있다면 사면이 되어

한다.

▲ 총무원 내 비구니부 신설 공약은 지켜지나?

— 총무에는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한명우 기자

### 원용바탕 타종단과 협조 강화 종무에 비구니스님도 참여해야

## ‘중국 관정스님 바람’ 엇갈린 견해

중국 복건성 삼회사의 주지 관정(寬淨 80세) 스님에 대한 국내 불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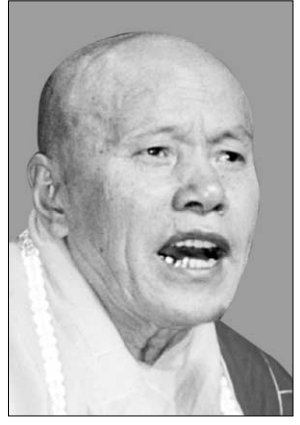
관정스님은 1997년 2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서울 능인선원과 구룡사에서 법문을 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한국불자들과 인연을 맺은 지 꼭 5년이 되는 날 20번째로 한국을 방문, 13일 신촌 봉원사에서 불화의 거장 만봉스님을 만나 법담을 나누는 이후 서울과 대구 부산 등지를 돌며 법문하고 있다.

국내 불자들의 관심은 6년 반 동안(1967년~1974년) 선정에 들어 극락세계를 친견하고 돌아 왔다는 행적에 대한 신빙성과 열불정토 선 수행법, 마정수기 의식, 허은 화상의 제자로 서 스승의 부축을 받아 중국 본토에 문화혁명기에 폐사된 사찰들을

어를 통한 설명보다 명확하다는 입장.

한 톨의 법알도 그냥 버리지 않는 검약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관정 스님은 외국을 다닐 때 항상 혼자 비행기를 탄다. 수행인을 동반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20개 사찰의 복원을 원력으로 삼은 스님은 불사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극도의 검박한 생활을 한다는 게 주변의 전언. “한국 불자들의 기대는 내가 너무 자주 찾아 와서 법회를 하고 불사비용을 모금해 간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안다”는 관정스님은 “한국불자들의 시주금 일체는 중국 사찰 건립에 쓰이고 있으며 맥사암사의 경우 한국전통 사찰 형식으로 건립했고 현판들도 한글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관정 스님은 법회 때 불자들에게 내리는 마정수기와 관련, “부처님이



## 극락친견·마정수기의식에 의구심 “한국서 받은 시주금 절 짓는데 사용”

복원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으로 압축된다.

관정스님에 대한 국내 불교계의 ‘눈 초리’를 환영과 냉담으로 나뉜다. 냉담한 시각에는 극락 친견을 비롯한 행적과 법회에서 마려되는 시주금의 용처에 대한 의구심이 다분히 묻어 있다.

불자들은 법회에서 “정말 극락세계를 다녀왔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관정스님은 극락에서의 여러 체험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 의심을 풀어준다. “그럼 6년 반 동안 육신은 어떻게 보곤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불가사의함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며 “열불선의 방법과 궁극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라”고 말한다. 직접 수행을 통해 불가사의한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 언

하시느 성스러운 의식인 마정수기를 관정스님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을 볼 수 있다”며 “극락세계에 갔을 때 아마도 부처님으로부터 중생계에 돌아간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고 정진할 수 있는 인연

을 수기하라는 부축을 받았다”고 답한다. 동국대학교 교수인 한 스님은 “관정스님의 수행법을 배우려는 국내 불자들의 열의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주변적인 이야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열불을 근간으로 하는 수행의 전통이 있음을 먼저 상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yllim@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

##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 해인사승가대학 (전통강원) 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치문반 ..... 00명
- 사집반 ..... 00명

### 구비서류

-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 ② 성적증명서(총무원 발급) ..... 2부
- ③ 행사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 2부
- ④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 2부
- ⑤ 주민등록초본 ..... 2부
- ⑥ 호적등본 ..... 2부
- ⑦ 건강진단서 ..... 2부
- ⑧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 ⑨ 은사스님 법명,속명(한글·한자),당호,주민등록번호,성적번호

### 준비물

- ① 사 진(오조가사 복사 / 3×4cm) ..... 8매
- ② 입학금
- ③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 전형방법

- 1차 입방 ◆ 서류제출일 : 불기 2547년 2월 10일(음력) (양력 2003년 3월 12일) 수요일
- ◆ 서류심사 및 면접일 : 불기 2547년 2월 14일(음력) (양력 2003년 3월 16일) 일요일
- ◆ 입 방 일 : 불기 2547년 2월 15일(음력) (양력 2003년 3월 17일) 월요일
- 2차 입방 ◆ 제 24기 행사교육원 수료 후 1주일 내 예정

### 문의처

● 전 화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7년 월 일

해인사승가대학 주지 수봉 세민 · 학장 정혜 지오